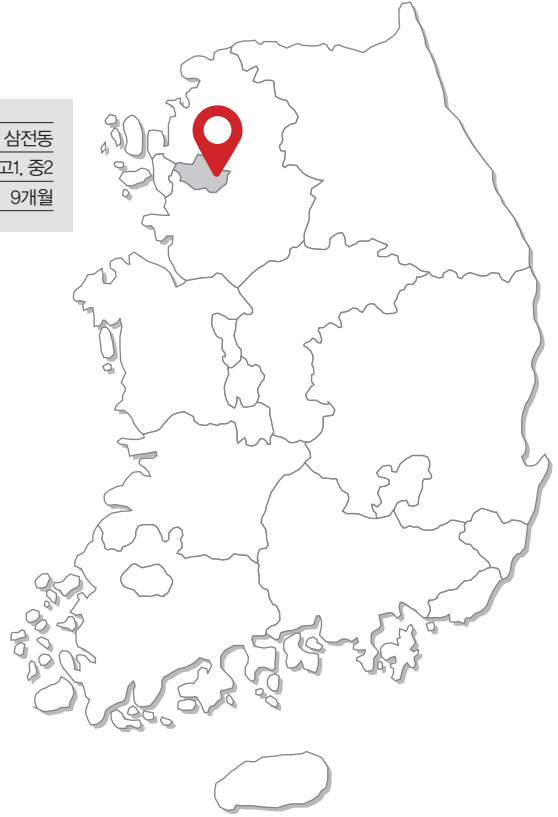


READER'S PAGE 독자에게 듣는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거주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자녀 고, 중2
구독 기간 9개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김한나의 이슈 코북 14 ‘수술실 CCTV 의무화’ 갑론을박

“노란봉투법, 수술실 CCTV,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다뤄줘 좋습니다. 특히 옆에서 이야기하듯 기사를 써주시니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고요, 아이들에게 읽어보라고 자주 권합니다.”



2023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33 지예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생활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수시 합격생 기사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과별로 어떤 주제로 세트를 구성했는지 등도 알 수 있어 도움을 받고 있죠. 아이가 착실하게 수시 준비를 하는 중인데 앞으로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그려볼 기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나요?

〈내일교육〉은 지역아동센터에 봉사 활동을 나갔다가 거기 선생님들이 보고 계셔서 알게 됐어요. 교육 관련 내용을 알차게 담고 있어 정기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잘 읽고 있어요.

어떤 기사를 주로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아이가 고1, 중2예요. 한창 대입이나 고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죠. 거기다 제가 목사라서 청소년들을 만날 일이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학습을 비롯해 여러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내일교육〉을 읽으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대입 관련 기사도 잘 읽지만 시사 이슈나 진로 인터뷰 등 다양한 교육 기사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일교육〉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또는 교육 관련 고민이
있으신가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앞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로에 대한 부담이 큰데 어떻게 진로를 설계해야 할지, 공부 방법은 중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학교생활은 어떻게 채겨야 하는지 다뤄주면 미리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대입 관련 기사들이 주를 이루지만, 중학교 기사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2028 대입 개편안을 비롯해 수능 난도 조절 등 대입 변화를 보면서 교육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참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3~4년 뒤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 싶기도 하고요. 수능 역시 당장 내년에 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부모 입장에서 이런 교육 환경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